

## 8 기획-교양 과목 다양성 부족

# 4년 주기 개편, 학생 의견 담기엔 역부족

박희원 기자 rxxxfjxy@khu.ac.kr

# 학생들 사이에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에 개설된 교양 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분인수 강좌의 분포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절반이 넘는 강좌가 인문사회 분야에 치중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신문은 교양과목 다양성의 부족 문제와 관련 현황을 짚어본다.

### 대학 교양 교육 새신 앞선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 과목 다양성은 숙제

우리학교는 ‘인문학에 기초한 교양교육 강화’가 미래대학이 나아가 갈 방향이라는 기조 아래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했다. 교양 전담 기구인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인문학을 보다 강조해 첨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성찰과 표현’, ‘주제연구’를 필수 교양으로 지정해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차별화된 학풍으로 대학사회의 교양 교육을 이끈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교양 과목이 철학·문학 등 인문학을 다루고 있기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배분인수 강좌의 분포 비율은 인문사회 분야 58.3%, 자연과학 분야 29.7%로 2배 차이가 난다.

타 대학들은 코딩과목을 필수 교양으로 지정하는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실용적인 교양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기에 경쟁력 측면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정진욱(미디어학 2020) 씨는 “필수 교양으로 파이썬을 배우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며 “문과여도 그 길로 나가려는 사례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오승엽(무역학 2021) 씨는 “Chat GPT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와 관련된 심도있는 과목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과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을 교양으로 듣고 싶다는 학생들도 존재했다. 재학생 A씨는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 교양 강의를 통해 관련 지식을 채우고자 했는데 내가 원하는 강좌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분인수 강좌 분포 비율

### 4년마다 돌아오는 개편 시기 학생 의견 담기엔 역부족

후마니타스칼리지는 4년 주기로 돌아오는 개편 시기에 맞춰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4년이라는 기간이 원활한 의견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과목들조차 개편 시기를 기다리느라 곧바로 신설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작년 서울캠 총학은 교양 다양성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22학년도 학생 주도형 배분·자유인수 창작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서울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

모전에서는 ▲생활 속의 계약법 ▲수어의 이해 ▲내 손안의 사진학 ▲무장애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 ▲퍼스널 브랜딩이 수상작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이 수상작들은 강의 신설로 연계되지 않았다. 공모전 수상작 선정이 연말에 진행돼 다음 학기 교육과정 개편 시기 내에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후마니타스칼리지 위원회는 “강좌 신설이나 교강사 채용 등이 이뤄지려면 수개월 전에 전달돼야 하는데 시기상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다.

단과대학과 곧바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캠포스(서울캠)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 창구가 따로 마

련돼 있지 않다. 국제캠포스(국제캠) 후마니타스칼리지 또한 소통 창구로 총학을 내세웠지만, 학생들이 총학에 요청할 시 소통에 그칠 뿐이지 실제 반영된 경우는 없었다.

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은 “현재 개설된 창구나 소통을 위한 시스템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내년에 진행되는 교육 과정 개편에서 총학생회(총학)나 교수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제캠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2023년도 4월 중으로 다양한 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후마니타스칼

리지 대학생위원회(후칼위)를 구성해 의견 반영 교양 개설에 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타 대학, 학생 의견 수렴하면 곧바로 강의 신설로 이어져

서울 주요 타 대학을 살펴보면, 공모전을 통한 강의 신설 시스템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해에 바로 교과목이 신설되는 형태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학생들이 교육과 관련된 의견을 공모할 수 있는 ‘학생기획평가단’을 마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과목 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 2021년도에 평가단 소속 학생들이 제안했던 ▲진로 관련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2가지 교과목은 지난 학기 시범 운영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1학년 필수 수강 과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2학년도에 제안된 ▲첨단분야 관련 교과목은 다음 학기 시범 운영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IR 센터 황경민 팀장은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 우선 시범 운영 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설하는 편이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매 학기 교과목과 교양 과목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지수(미디어학 2020) 씨는 “학생 의견을 즉각 반영해 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이 눈으로 보인다면 공모전 참여율도 높아지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나리(주거환경학 2022) 씨는 “개편시기가 2~3년 남았을 때 입학해서 원하는 교양을 들을 수 없었다”며 “개편 주기가 짧아지거나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된다면 교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도 ‘2023학년도 학생 주도형 배분/자유인수 창작 공모전’이 진행됐다. 이번 달 26일 마감된 공모전의 선정 및 시상은 6월 둘째 주 중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은 작년 수상작들과 함께 행정실과 교과 팀에 전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후칼위는 서울캠 재·휴학생들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해 다음해 예정된 교육과정 개편에 학생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TF팀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학내 구성원 설문조사를 전담한 후 교양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례 조사 및 논의를 진행한다.